

산업간 이직특성과 임금변화

권 덕 희* · 정 세 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임금격차(소득격차)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의 양극화 문제의 큰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임금격차의 문제를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산업간 임금격차 문제는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즉 산업구조의 변화와의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산업간 임금격차의 현황을 지난 10년간의 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산업간 일자리 이동 및 고용형태의 변화가 임금수준을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를 집중 살펴봄으로써, 산업간 이직이 산업간 임금격차 증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지 추측해보고자 했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에서의 낮은 임금은 여성, 노년층, 저학력,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근로자 특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격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이직과정 및 고용형태의 변화를 거치면서 임금변화의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간 임금격차가 이직 및 고용형태 변화를 통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용어 : 제조업, 서비스업, 일자리 이동, 이직특성, 임금격차, 임금변화

1. 서론

한국 사회의 임금격차의 문제는 엄중한 사안이다. 임금격차는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은 남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간 등과 결부되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격차 문제에서 그동안 다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기울여졌던 측면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임금격차이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업화 현상이 지속되어 오면서 임금격차 문제는 산업구조 문제와 분리되어 이해할 수는 없는데도 그동안 산업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hellhera@cnu.ac.kr)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seeun@cnu.ac.kr)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생산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조업에 주로 수출대기업이 포진해 있고 조직된 남성 노동자들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수준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높은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임금격차 현상이 뚜렷한데 이것은 제조업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노동자들은 노조를 구성하기 더욱 쉬울 것이라는 점도 제조업에서의 높은 임금수준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제조업에 뒤처지는 조건을 가진 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전체 임금 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일자리의 축소와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를 야기하는 요인은 많지만, 그 중 하나의 경로는 제조업에서 방출된 근로자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들의 일자리 이동은 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쇄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산업간 일자리 변동 과정은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동 과정의 하나의 경로인 노동자들의 이직이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즉 본 연구는 산업간 이직 노동자들의 임금변화에 주로 관심이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동, 서비스업에서의 제조업으로의 이동이 임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심이 있다. 향후 3절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지난 10년간 노동패널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가 커져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직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는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0년, 2013년~2014년, 2017~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평균임금수준 및 변화, 근로자 특성 및 구성 변화 등을 비교함으로써 장기에 걸친 노동시장의 산업별 변화를 살펴본 후, 산업간 이직특성을 일자리 형태 및 취업 형태별 측면에서 이직자 수와 임금수준(소득수준) 및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된 한국경제의 중요 문제가 임금격차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주요 선행연구들의 내용과 결론을 먼저 살펴보자. 임금격차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에 초점을 두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핵심 연구주제는 임금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를 보고, 그러한 임금격차가 다양한 요인, 예를 들어 생산성과 관련된 회사와 근로자의 특성 요인, 혹은 그 외 노동시장 제도 등 사회경제적 제도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구의 초점은 그러한 설명 요인들의 설명력에 두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설명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두어지기도 했다.

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은 성별 임금격차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서비스업 확대 배경 하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93~2004)와 한국노동패널(1998~2005)을 활용하여 남녀 임금격차 현상에 대해 연구한 이성균·김영미(2010) 연구가 대표적이다. 해

당 연구는 고임금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직종에서 나타난 고용 분절화 현상은 남녀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보았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특히 여성 진출이 많은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부문이 저소득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수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최근 다양한 이슈로 분화되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로는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연구의 김난주(2017)와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임나연·최민식(2019) 등이 있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연구가 활발해진 분야이며, 김기승·김명환(2013)와 정성미·성재민(201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기승·김명환(2013)은 노동조합의 존재가 정규직 및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2002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격차분해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존재가 차별적인 임금격차를 해소시키는 데에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성미·성재민(2014)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2002~2013년 자료를 통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해하였으며, 근로자 특성에 해당하는 요인들에 의해 임금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임금격차를 가져오는 또 다른 주된 요인으로는 기업규모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김영미·한준(2008), 조동훈(2009), 손홍엽·김기승(2013)의 연구가 있다. 김영미·한준(2008)은 기업규모별 및 직종별 임금격차를 1996년과 2004년에 대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의 증가는 대기업 임금근로자들의 근속년수 등 근로자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경우 근로자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임금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조동훈(2009)은 기업규모에 따라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임금차별을 한국노동패널 1998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근로자 특성에 의해 임금격차 상당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손홍엽·김기승(2013)은 2001년~2008년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는데, 근로자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전체 임금격차 중 40.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연구로는 송상윤(2018)이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 근로자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높은 학력과 긴 경력을 가진 숙련 근로자의 대기업 쏠림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비율과 하청기업의 낮은 임금, 높은 중소기업 비율이 제조업 부문에 있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써,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에 있어 원청 및 하청기업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와 연관성이 깊은 산업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연구에 비해 소수이다. 박훤구(1983)의 연구를 선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전병유(1995) 및 박성준(2001), 권덕희·정세은(2017)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성준(2001)은 산업간 임금격차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권덕희·정세은(2017)은 경제의 서비스화를 고려하여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조업과의 임금격차 현상을 분석하였다. 권덕희·정세은(2017)은 1999년, 2008년, 2015년의 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임금격차 현상을 분석

하였고, 서비스산업간 차이도 고려하기 위해 서비스업을 4개 그룹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999년 제조업보다 높았던 서비스업의 평균임금수준이 점차 낮아져 2015년에는 제조업보다 낮아졌으며, Oaxaca 임금분해 결과 제조업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도소매개인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임금격차 중 30% 정도가 근로자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였다. 또한 근로자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도 생산성 차이에서 오는 격차로 온전히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저임금이 저생산성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산업간 이직이 그 이직노동자들의 임금에 어떠한 변화를 미칠 것인가가 관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정확히 들어맞는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인 몇 개의 선행연구로는 김혜원·최민식(2008), 남기성(2009), 남춘호(2011)등을 들 수 있다.

김혜원·최민식(2008)은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07년까지의 원자료 데이터를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여 직장이동에 따른 단기임금변화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특히 실직기간의 경험여부와 실직사유 등을 구분하여 Bartel and Borjas(1981)과 Mincer(1986)의 추정방식을 따른 임금변화 회귀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직장간이동이 실직기간 없이 이루어진 경우 7%의 임금이 상승되었으나, 실직을 경우에는 10%의 임금하락, 그리고 선별적 해고를 통해 직장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38%의 임금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층에 있어서는 원인에 관계없이 직장이동 과정에서의 임금변화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중장년층에 있어서 큰 폭의 임금하락은 선별적 해고로 인한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비선별적 해고의 경우에는 임금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실직기간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였다.

남기성(2009)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3차의 가구와 가구원 데이터를 결합하여 근로형태¹⁾, 고용형태²⁾ 등의 고용 속성과 균등화 소득³⁾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근로형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의 경험이 있을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어도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비정규직 경험이 없었던 패널에 비해 높았다. 균등화 소득 변화과정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변화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서 저소득층가구로 변화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소득변화과정이 일반가구에서 저소득층가구로, 저소득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반가구로 및 저소득층가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춘호(2011)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고용의 질에 초점을 두어 일자리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일자리의 질 측정을 위한 고용의 질 지수를 개발하여 일자리 분포의 변화와 일자리 유지 및 이동 방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부가조사에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일자리 이동 분석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연결패널로 가공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고용의 질 지수를 통해 일자리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노동의 질 측면에 있어 쌍봉분포를 보이는 양

1) 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근로능력있음, 근로능력없음)
 2) 정규직, 비정규직
 3) 일반가구, 저소득층가구

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만 증대된 것이 아니라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업처럼 고용의 질이 높은 업종으로 재편된 것으로 보았다. 일자리 분포 분석 결과 고용의 질은 남성, 30~40대, 대졸자, 제조업,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대기업 정규직 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 양극화에 직업구조 및 계급구조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산업별 일자리 이동 분석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들의 하강이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III. 산업별 근로자 특성 및 임금수준 추이

1. 산업별 취업 및 고용 비중 추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로서 2009년~2010년, 2013년~2014년, 2017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사회경제적 변동이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기간에 걸쳐 산업간 이직과 그로 인한 임금변화 패턴이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 그 특성이 혹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되,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산업, 생산자전문서비스업, 행정사회서비스업, 도소매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⁴⁾하여 서비스업 하위 산업별 차이도 파악하고자 했다. 산업분류는 9차 개정(2009) 코드를, 직종분류⁵⁾는 6차 개정(2007) 코드를 활용하였다. 활용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로서 그 중에서도 임금근로자가 주 대상이며, 필요에 따라 취업형태가 고용주 및 자영업인 취업자로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자료의 수는 <표 1>과 <표 2>와 같다. 이를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 및 고용비중의 크기와 변화 여부를 살펴보면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취업자 수는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해서 2018년에는 2009년 수준을 조금 웃돌았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크게 증가했다. 종합하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임금노동자 수는 유지되는데 자영업자의 숫자가 감소하였고 이후 자영업자의 숫자는 유지되는데 임금노동자 숫자가 증가하였다.

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송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사회간접자본산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전문서비스업으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행정사회서비스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은 도소매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5) 직종분류의 경우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관리전문직으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조립기능직으로, 판매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는 판매서비스직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및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순노무직으로,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를 사무직으로 분류하였다. 농림어업 및 광업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직종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산업별 표본 수 및 비중 변화 - 취업자

(단위: 명, %)

		전체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산업	생산자전문 서비스업	행정사회 서비스업	도소매개인 서비스업
2009	취업자수	7,245	1,236	1,012	717	1,177	2,504
	비중	100.0	18.6	15.2	10.8	17.7	37.7
2010	취업자수	6,717	1,244	1,020	721	1,251	2,481
	비중	100.0	18.5	15.2	10.7	18.6	36.9
2013	취업자수	6,850	1,315	1,050	724	1,275	2,486
	비중	100.0	19.2	15.3	10.6	18.6	36.3
2014	취업자수	6,659	1,276	1,044	674	1,287	2,378
	비중	100.0	19.2	15.7	10.1	19.3	35.7
2017	취업자수	7,345	1,326	1,126	766	1,485	2,642
	비중	100.0	18.1	15.3	10.4	20.2	36.0
2018	취업자수	7,383	1,336	1,126	765	1,564	2,592
	비중	100.0	18.1	15.3	10.4	21.2	35.1

주: 표본은 임금노동자와 고용주 및 자영업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조사

<표 2> 산업별 표본 수 및 비중 변화 - 임금노동자

(단위: 명, %)

		전체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산업	생산자전문 서비스업	행정사회 서비스업	도소매개인 서비스업
2009	임금노동자수	5,017	1,072	747	577	1,044	1,577
	비중	100.0	21.4	14.9	11.5	20.8	31.4
2010	임금노동자수	5,126	1,096	765	585	1,112	1,568
	비중	100.0	21.4	14.9	11.4	21.7	30.6
2013	임금노동자수	5,306	1,171	790	598	1,139	1,608
	비중	100.0	22.1	14.9	11.3	21.5	30.3
2014	임금노동자수	5,175	1,136	783	556	1,154	1,546
	비중	100.0	22.0	15.1	10.7	22.3	29.9
2017	임금노동자수	5,817	1,181	862	642	1,346	1,786
	비중	100.0	20.3	14.8	11.0	23.1	30.7
2018	임금노동자수	5,875	1,187	861	646	1,431	1,750
	비중	100.0	20.2	14.7	11.0	24.4	29.8

주: 표본은 개인 임금노동자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조사.

둘째, 산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제조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절대적 기준으로는 취업자수와 고용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취업자 수나 고용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8.6%에서 2018년 18.1%로 다소 감소하였고 임금노동자 수는 21.4%에서 20.2%로 더 많이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에 비해 임금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전히 일자리의 서비스업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비스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산업, 생산자전문서비스업은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은 데 비해 행정사회서비스업과 도소매개인서비스업이 큰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 인구구조와 소비 및 생활 행태의 변화와 관련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산업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는 절대적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며 비중으로 보면 15.2%에서 15.3%, 14.9%에서 14.7%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 전체의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비중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자전문서비스업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는 절대적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며 비중으로 보면 10.8%에서 10.4%, 11.5%에서 11.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역시 경제 전체의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비중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생산자전문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고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가 절대적 기준으로도 비중으로도 크게 증가했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는 비중으로 보면 각각 17.7%에서 21.2%, 20.8%에서 24.4%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 전체 평균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서비스 부문은 공무원, 교사 등 좋은 일자리도 있으나 복지부문에서의 나쁜 일자리도 많은 부문이다. 복지 확대를 반영한 일자리 변화이지만 일자리의 질의 변화는 판단하기 어렵다.

도소매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가 절대적 기준으로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자 수가 더 많이 증가했으나 비중으로 보면 둘 다 감소했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취업자 수와 고용자 수는 비중으로 보면 각각 37.7%에서 35.1%, 31.4%에서 29.8%로 감소하여 경제 전체 평균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서비스 부문은 전통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부문으로서 나쁜 일자리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2. 산업별 근로자 특성

이제 2009~2018년 동안 근로자 특성 변화를 살펴보자. 근로자의 인적 특성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산업별 인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가 중요하다. <표 3>은 산업별 근로자 특성을 지난 10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각 범주별 특성 변화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첫째, 남녀구성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남성비율의 소폭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남성비율이 크게 감소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비율이 소폭 증가한 제조업과 비교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여성 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남녀임금격차를 생각해 볼 때, 서비스업의 임금을 낮추는 원인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 복지서비스업의 증가가 여성비율의 증가를 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령별 구성 비율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비율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먼저 청년층은 제조업에서 2010년 49.0%에서 2018년 40.6%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에서는 48.0%에서 35.0%로 감소해 서비스업에서 더욱 큰 감소를 보였다. 장년층의 경우에는 2010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구성 비율이 각각 37.3%, 42.6%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약 5%p 높

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장년층의 비중이 각각 51.1%와 48.1%로 변화하여 기존 약 5%p의 격차에서 약 3%p 정도로 격차가 완화되었다.

<표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근로자 특성 변화

(단위: %)

		2009		2010		2013		2014		2017		2018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성별	남성	72.7	57.7	73.2	56.7	73.3	55.5	73.9	54.8	73.8	53.7	74.1	53.0
	여성	27.3	42.3	26.8	43.3	26.7	44.5	26.1	45.2	26.2	46.3	25.9	47.0
연령	청년층	50.6	50.2	49.0	48.0	44.7	41.7	42.6	38.5	41.0	36.0	40.6	35.0
	장년층	45.7	41.1	47.3	42.6	50.2	46.0	51.7	48.0	52.0	48.0	51.1	48.1
	노년층	3.7	8.7	3.7	9.4	5.1	12.3	5.7	13.5	7.0	16.1	8.3	16.9
고용 형태	정규직	81.1	62.3	79.5	60.5	81.6	58.2	81.8	56.7	83.9	56.5	84.5	57.3
	비정규직	18.9	37.7	20.5	39.5	18.4	41.8	18.2	43.3	16.1	43.5	15.5	42.7
학력	중학교 이하	17.6	16.5	16.8	16.6	14.8	15.3	13.1	15.3	10.6	13.2	10.1	12.6
	고등학교 졸업	42.1	32.0	42.2	32.0	38.1	31.8	38.4	32.1	37.5	30.6	36.6	30.1
	초대졸 이상	40.3	51.5	41.1	51.5	47.1	52.8	48.5	52.6	51.9	56.2	53.3	57.2
직종	관리전문직	14.7	26.0	13.6	27.0	15.6	26.7	16.9	26.6	15.5	26.9	16.3	28.2
	사무직	16.7	20.1	16.0	19.6	17.1	19.5	19.2	19.4	21.6	19.9	21.7	19.7
	조립기능직	60.7	16.8	62.5	15.9	59.1	15.3	56.3	15.1	54.3	14.6	53.6	14.8
	판매서비스직	2.4	20.4	2.3	20.6	2.1	21.6	1.7	21.5	1.5	22.0	1.7	21.9
	단순노무직	5.5	16.7	5.7	16.9	6.2	17.0	5.9	17.4	7.0	16.5	6.8	15.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0.8	65.7	70.5	66.8	72.8	68.4	74.0	69.3	73.2	67.2	72.8	66.8
	배우자 없음	29.2	34.3	29.5	33.2	27.2	31.6	26.0	30.7	26.8	32.8	27.2	3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표본은 개인 임금노동자.

주2: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 장년층은 만 40세 이상~만 59세 이하, 노년층은 만 60세 이상

주3: 배우자 없음에는 미혼, 별거, 이혼, 사망이 포함하며, 별거의 경우 혼인관계는 지속되나 경제활동을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

주4: 직종에서 농업숙련종사자는 제외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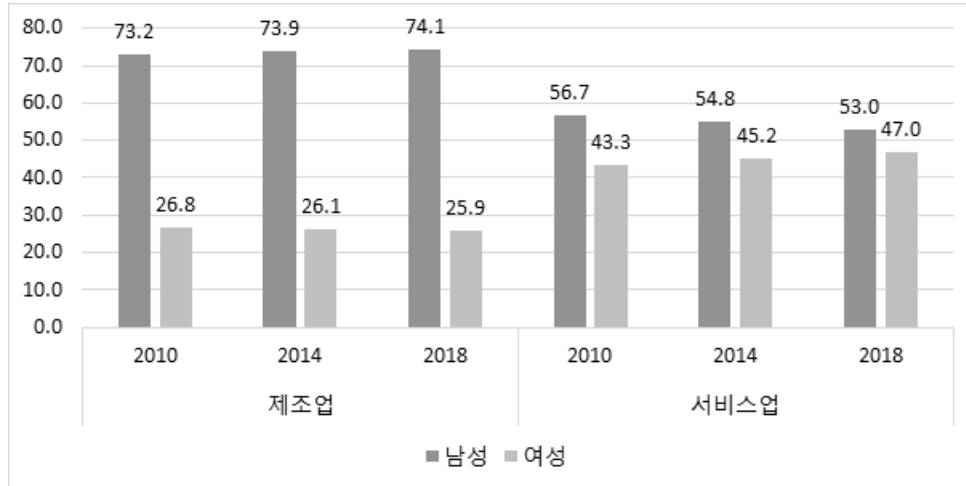
반면 2010년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각각 3.7%와 9.4%를 보였던 노년층의 구성 비율은 2018년에 이르러 제조업에서는 8.3%, 서비스업에서는 16.9%로 크게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10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는 4.6%p,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7.5%p가 증가하여 서비스업에서의 구성 비율 증가가 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노년층 구성 비율의 증가 또한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업 임금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에 향후 주목해야하는 산업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 변화라 할 수 있다.

셋째, 고용형태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변화 추이가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2018년 기간 동안 제조업에서는 정규직 비율이 약 5%p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3.2%p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임금격차

에 고용형태에 따른 요인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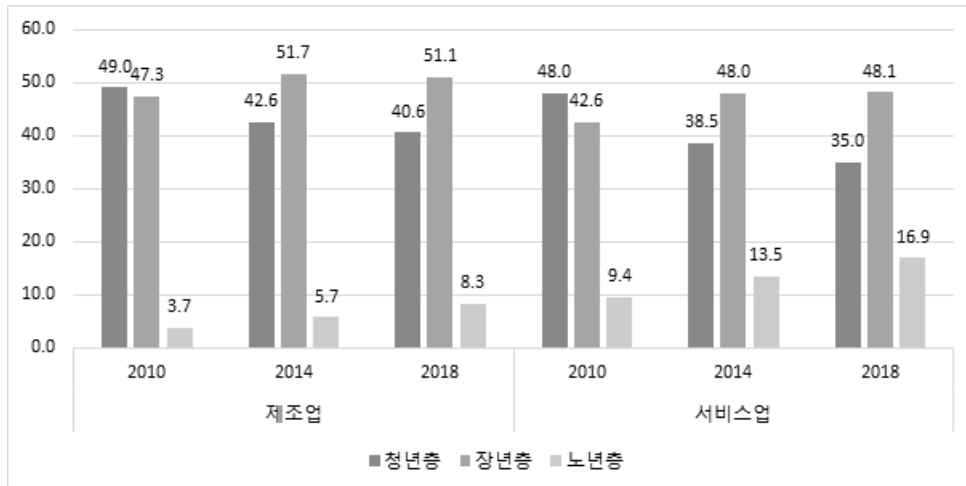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별 구성 변화

(단위: %)



<그림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령별 구성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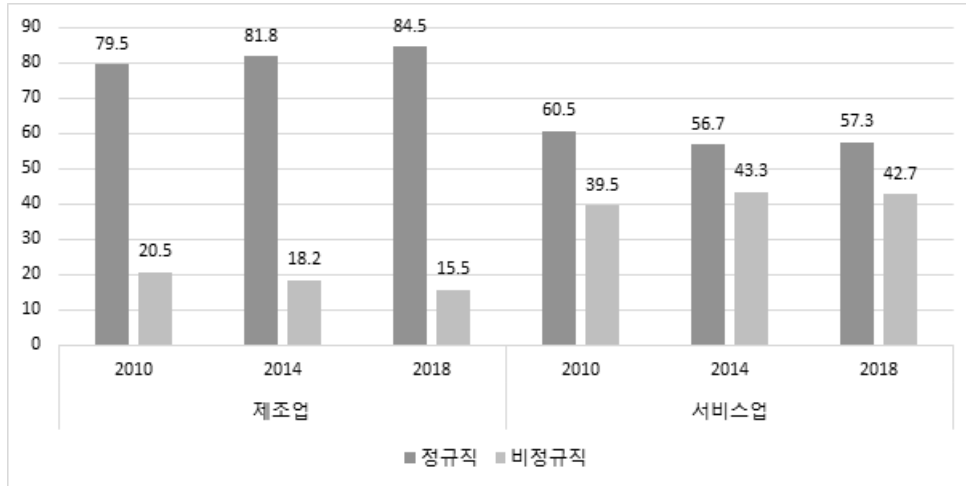


넷째, 기타 산업별 근로자 특성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있어 학력별 구성 비율 및 직종별 구성 비율 등이 있다. 학력별 특성으로는 중학교이하 및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초대졸 이상의 학력 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경우 서비스업에서는 구성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제조업에서는 크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초대졸 이상 학력의 구성 비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초대졸 이상 학력의 구성 비율이 2010년 51.5%에

서 2018년 57.2%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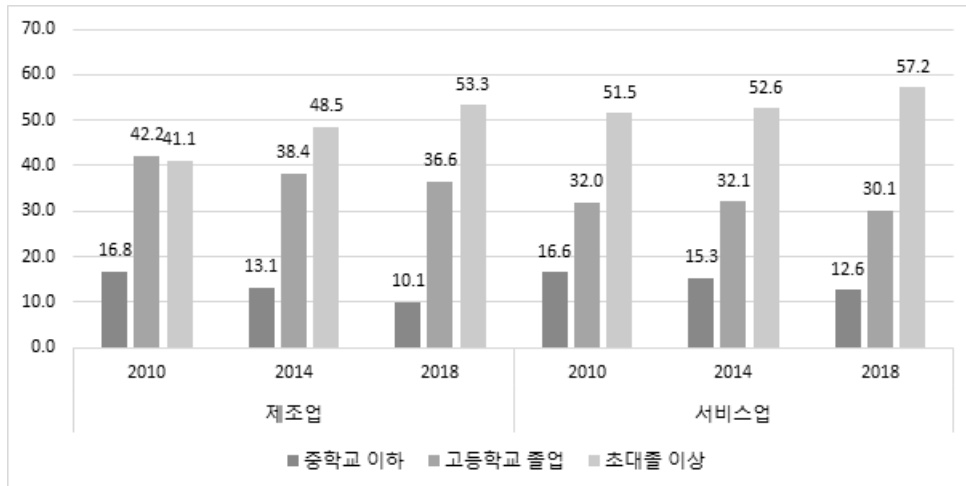
<그림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 변화

(단위: %)



<그림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학력별 구성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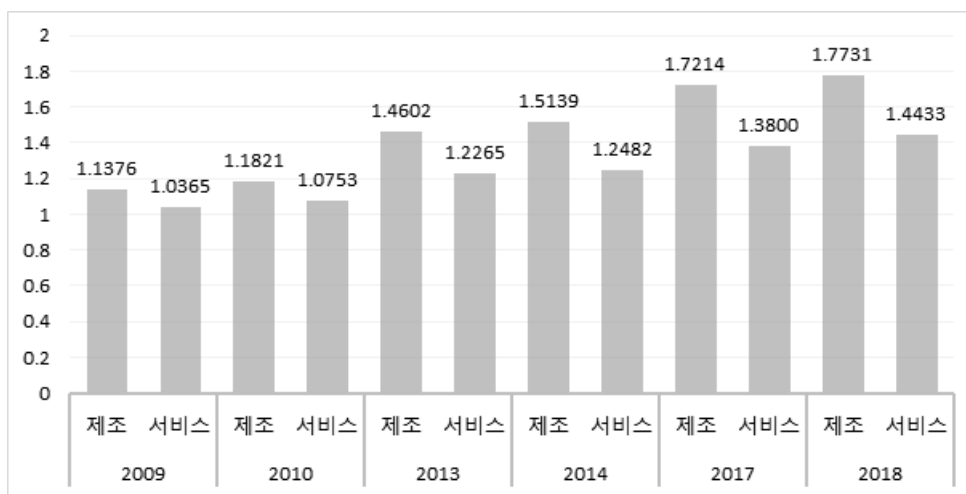
직종별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구성비율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의 구성 비율이 증가한 반면 판매서비스직에서는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는 관리전문직에서 증가, 조립기능직에서 감소를 보였다. 사무직 및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서는 소폭 증가 혹은 감소를 보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3. 지난 10년간 산업별 임금수준 추이

산업간 이직을 통한 임금변화 분석에 앞서 2009년~2018 기간 동안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에 따르면 제조업의 2018년 시간당 평균임금은 1.7731만 원으로 2009년의 1.1376만 원에 비해 55.9% 상승하였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시간당 평균임금이 1.4433만 원으로 2009년 1.0365만 원에 비해 3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의 임금 상승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수준 변화(시간당)

(단위: 만 원)



<표 4> 산업별 평균 임금수준 변화(시간당)

(단위: 만 원)

	전체 평균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산업	생산자 전문서비스업	행정사회 서비스업	도소매개인 서비스업
2010	1.0982	1.1821	1.1195	1.5652	1.2122	0.7739
2014	1.3066	1.5139	1.3532	1.7924	1.3341	0.9353
2018	1.5100	1.7731	1.5878	2.0330	1.4652	1.1366

자료: 한국노동패널 2010년, 2014년, 2018년 조사

<표 5> 제조업의 대비한 서비스업 평균 임금수준 변화(제조업 평균 임금 = 1)

(단위: 배)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산업	생산자 전문서비스업	행정사회 서비스업	도소매개인 서비스업
2010	1.00	0.95	1.32	1.03	0.65
2014	1.00	0.89	1.18	0.88	0.62
2018	1.00	0.90	1.15	0.83	0.64

자료: 표4 활용하여 계산

서비스업을 사회간접자본산업, 생산자전문서비스업, 행정사회서비스업, 도소매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2018년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은 생산자서비스업이었으며, 제조업보다도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산업과 행정사회서비스업, 도소매개인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2018년 임금 상승률 변화의 경우, 제조업이 높은 비율로 상승하였으며, 그 뒤를 도소매개인서비스업과 사회간접자본, 생산자서비스, 행정사회서비스업 순으로 임금이 상승하였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개인서비스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임금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은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임금수준이 낮았던 사회간접자본산업 및 도소매개인서비스업이 보인 높은 임금상승률은 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소매개인서비스업에서 나타난 높은 임금상승률은 최근 임금상승폭이 큰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 5>는 제조업의 임금을 1로 보았을 때 각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위 서비스업 모두에서 상대적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전문서비스업과 행정사회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대비 상대적 임금수준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

<표 6>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있어서 근로자 특성에 따른 시간당 평균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별에 의한 격차가 뚜렷하게 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평균임금의 70%에 머무르고 있다.

연령층에 따른 임금변화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장년층, 청년층, 노년층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장년층에서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서비스업 노년층에서의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년층의 낮은 임금수준은 최근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노년층 빈부격차 및 빈곤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따라 다소 다른 임금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및 초대졸 이상 학력의 임금이 중학교 이하 학력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임금상승률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초대졸 이상 학력의 임금이 중학교 이하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보다 임금수준 격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비슷한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수준 차이는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임금상승률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에서 비슷한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직종에 따른 임금수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그리고 직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모든 직종이 제조업에서 임금수준 및 임금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 반면, 조립기능직 및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크지 않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그쳤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전 직종에서 임금수준의 상승이 나타났으나 타 직종에 비해 관리전문직 및 판매서비스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의 폭이 작게 나타났다.

<표 6> 제조업 및 서비스업 평균 임금수준 - 근로자 특성

(단위: 만 원)

		2009		2010		2013		2014		2017		2018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성별	남성	1.3158	1.2134	1.3617	1.2558	1.6846	1.4435	1.7334	1.4529	1.9593	1.5987	1.9916	1.6717
	여성	0.6637	0.7950	0.6921	0.8392	0.8452	0.9561	0.8911	1.0000	1.0501	1.1267	1.1496	1.1860
연령	청년층	1.1542	1.0270	1.1943	1.0718	1.4170	1.2383	1.4821	1.2457	1.6252	1.3383	1.6866	1.3978
	장년층	1.1589	1.1379	1.2073	1.1637	1.5517	1.3414	1.5929	1.3834	1.8800	1.5766	1.9381	1.6446
	노년층	0.6513	0.6106	0.7042	0.6925	0.9408	0.7560	1.0366	0.7733	1.1097	0.8864	1.1849	0.9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240	1.1537	1.2775	1.1796	1.5713	1.3498	1.6270	1.3648	1.8644	1.5176	1.9115	1.5778
	배우자 없음	0.9280	0.8121	0.9538	0.8653	1.1636	0.9597	1.1914	0.9846	1.3319	1.0983	1.4527	1.2445
학력	중학교 이하	0.7308	0.5854	0.7494	0.6168	0.8458	0.6649	0.8519	0.7233	0.9905	0.8193	1.0446	0.8403
	고등학교 졸업	1.1233	0.8157	1.1521	0.8400	1.3817	0.9596	1.4178	1.0019	1.5373	1.1217	1.5756	1.1973
	초대졸 이상	1.3305	1.3187	1.3899	1.3691	1.7162	1.5506	1.7690	1.5513	2.0036	1.6524	2.0454	1.7578
고용 형태	정규직	1.2473	1.2505	1.3152	1.2788	1.6036	1.5082	1.6482	1.5282	1.8381	1.6807	1.8916	1.7149
	비정규직	0.6623	0.6782	0.6652	0.7573	0.8265	0.8306	0.9113	0.8792	1.1128	0.9875	1.1274	1.0763
직종	관리전문직	1.5106	1.4455	1.5940	1.4688	2.0665	1.6541	2.0758	1.6411	2.2628	1.7510	2.2763	1.7794
	사무직	1.3098	1.2877	1.3694	1.2867	1.6994	1.4978	1.6897	1.5557	1.9149	1.6972	1.9232	1.7754
	조립기능직	1.0563	0.9416	1.0947	1.0277	1.3096	1.1906	1.3617	1.2334	1.5974	1.3741	1.6711	1.4519
	판매서비스직	1.1285	0.7413	1.2706	0.7831	1.2608	0.8939	1.2407	0.9371	1.3950	1.0328	1.6114	1.0931
	단순노무직	0.5369	0.5760	0.5966	0.6119	0.7700	0.7251	0.8714	0.7307	0.9449	0.8965	0.9327	0.9204
전체		1.1376	1.0365	1.1821	1.0753	1.4602	1.2265	1.5139	1.2482	1.7214	1.3800	1.7731	1.4433

주1: 표본은 개인 임금노동자.

주2: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 장년층은 만 40세 이상~만 59세 이하, 노년층은 만 60세 이상

주3: 배우자 없음에는 미혼, 별거, 이혼, 사망이 포함하며, 별거의 경우 혼인관계는 지속되나 경제활동을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

주4: 직종에서 농업숙련종사자는 제외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조사.

IV. 산업간 이직특성과 임금변화

1. 취업 및 일자리 형태에 따른 이직특성과 소득변화

산업간 이직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취업형태 및 일자리 형태에 따른 이직특성과 소득⁶⁾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은 2009년~2010년, 2013년~2014년, 그리고

2017년~2018년에 이루어진 이직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직 유형으로는 임금노동자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에서 임금노동자로, 미취업에서 임금노동자로, 미취업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임금노동자에서 미취업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총 6가지 유형이다. 표에서 소득수준은 이직 후의 소득이며, 소득수준 및 소득변화는 장기추세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세 제거를 위해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분⁷⁾을 제외하였다⁸⁾.

임금노동자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 이직 전 임금보다 이직 후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수준의 상승은 매우 미미했다. 즉 고용주 및 자영업자들의 시간당 평균 소득수준의 상승은 점차 더더지고 있으며, 임금노동자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이직이 이루어질 경우 이직 전보다는 소득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표 7> 취업 및 일자리 형태에 따른 이직과 소득변화

(단위: 명)

유형	2009~2010			2013~2014			2017~2018		
	이직자 수	소득 수준	소득 변화	이직자 수	소득 수준	소득 변화	이직자 수	소득 수준	소득 변화
임금노동자 → 고용주 및 자영업자	89	0.9554	-0.1191	58	1.1310	-0.0707	89	1.1330	-0.1132
고용주 및 자영업자 → 임금노동자	90	0.7898	0.2170	65	1.0613	0.0244	66	1.3119	0.0439
미취업 → 임금노동자	625	0.6812	-	399	0.7866	-	547	0.9391	-
미취업 → 고용주 및 자영업자	113	0.4231	-	54	0.8596	-	59	1.1790	-
임금노동자 → 미취업	436	-	-	351	-	-	446	-	-
고용주 및 자영업자 → 미취업	151	-	-	82	-	-	92	-	-

반면 고용주 및 자영업자에서 임금노동자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2010년과 2013년~2014년에는 임금수준이 고용주 및 자영업자에서 임금노동자로 이직한 경우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지만, 2017년~2018년에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금노동자의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의 이직 경우에는 기존 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로의 이직 경우에는 기존의 소득보다 높은 임금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주 및 자영업자들에게 나타나는 소득의 하락은 경기 상황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6) 본 연구의 주된 분석은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수준 및 변화이지만, 이직 과정에서 취업 형태 및 일자리 형태가 변경될 경우 임금이 아닌 소득으로 일컫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어 임금 대신 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7)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분은 2009년~2010년은 0.0610, 2013~2014년은 0.0445, 2017년~2018년은 0.077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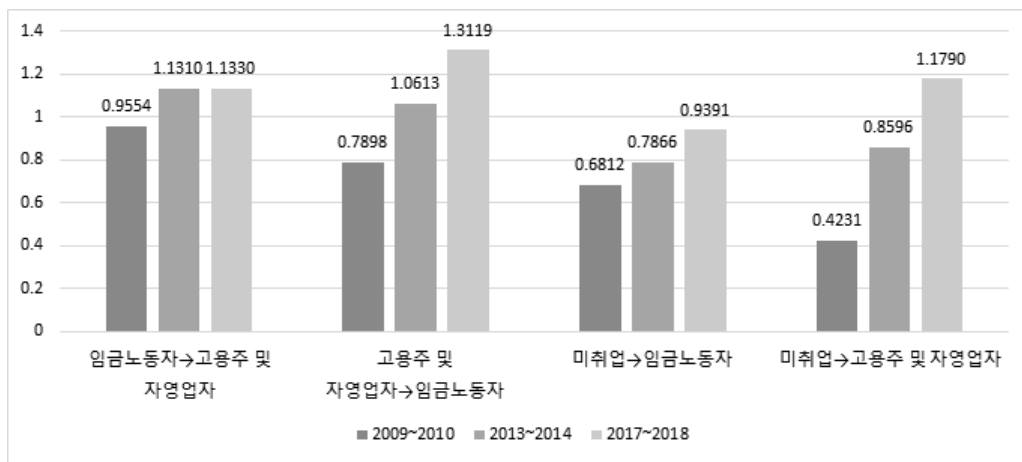
8) 이하의 이직에 따른 소득수준 및 소득변화에 대한 모든 결과는 추세치를 제거한 결과이다.

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감소하고 있는 최종 소비지출 규모 및 소비자동향에서 나타나는 미래 지출 감소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노동자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취업이 이루어질 때 소득수준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대상의 시작이 되는 2009년~2010년의 소득수준이 워낙 낮았기에 때문이며, 2017~2018년 소득수준은 미취업에서 임금노동자로 이직한 경우보다는 높지만, 임금노동자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이직했을 때의 소득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6> 이직에 따른 소득수준 변화

(단위: 만 원)



2.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이직과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변화

<표 8>는 해당기간 동안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이직에 따른 임금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직이 이루어질 경우 2009~2010년 기간에는 임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2014년, 2017년~2018년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하여도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의 상승폭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보다 크지는 않았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임금은 상승하였으며, 상승 폭은 서비스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8>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이직과 임금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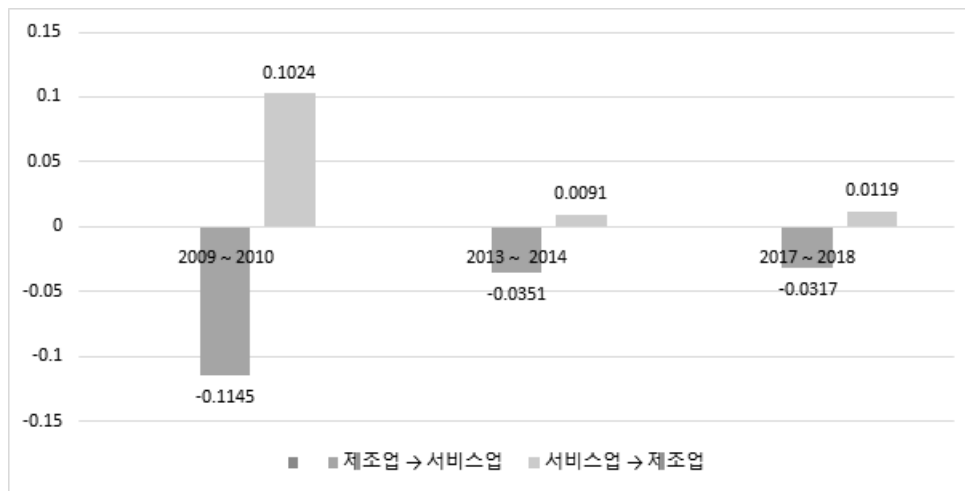
(단위: 명, 만 원)

유형	2009~2010		2013~2014		2017~2018	
	이직자수	임금변화	이직자수	임금변화	이직자수	임금변화
제조업 → 서비스업	43	-0.1145	48	-0.0351	59	-0.0317
서비스업 → 제조업	76	0.1024	42	0.0091	58	0.0119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직이 이루어질 때 임금수준은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2010년, 2014년, 2018년에 이르기까지 이직으로 인한 임금수준의 하락 정도는 확연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10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임금이 상승하였지만, 2014년과 2018년 연속적으로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할 때의 임금 하락폭의 감소,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할 때의 임금 상승폭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간 이직에 의한 임금 상승 및 임금 하락이 감소하며 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9).

<그림 7>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이직과 임금변화

(단위: 만 원)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이직이 이루어지면서 고용형태가 변화할 때 임금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표 9>과 <그림 8>와 같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이 이루어질 때 고용형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경우 2009년~2010년, 2013년~2014년에는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7년~2018년에는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이 이루어질 때 2013년~2014년에 임금이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이직이 이루어질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임금의 상승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보다 최근 더 큰 폭의 상승을

9)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미취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분석결과이므로 미취업 경험이나 미취업 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간 이직 과정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미취업을 경험하지 않고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미취업 기간을 가진 뒤 기존 산업 및 직종이 아닌 타 산업 및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취업을 거치지 않는 경우 산업간 이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직종이 같을 확률이 크므로 추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미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가져온 것으로 관찰되었기에 이 역시 서비스업 노동시장에 있어 임금 상승의 효과가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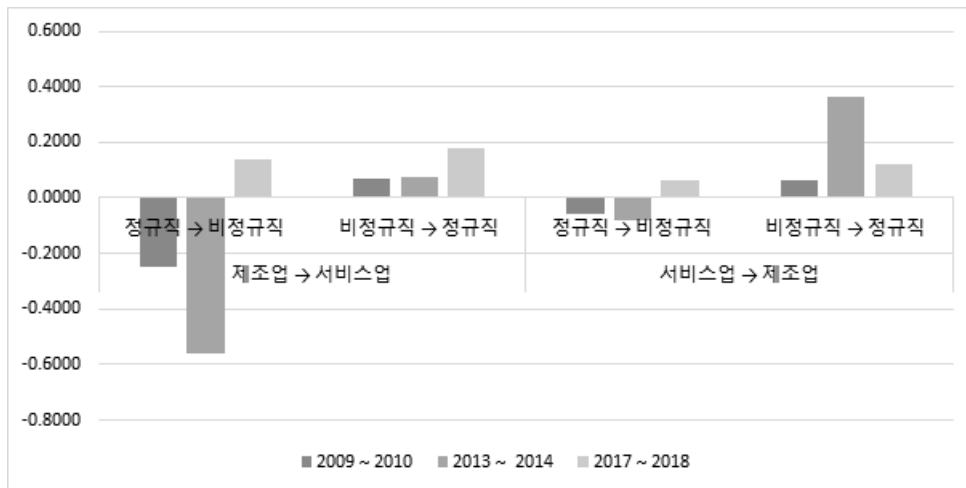
<표 9>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이직과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변화

(단위: 명, 만 원)

유형	정규직 여부	2009~2010		2013~2014		2017~2018	
		이직자수	임금변화	이직자수	임금변화	이직자수	임금변화
제조업 → 서비스업	정규직 → 비정규직	12	-0.2503	6	-0.5630	12	0.1377
	비정규직 → 정규직	5	0.0694	3	0.0741	3	0.1789
서비스업 → 제조업	정규직 → 비정규직	5	-0.0565	1	-0.0838	9	0.0613
	비정규직 → 정규직	15	0.0633	5	0.3655	10	0.1224

<그림 8>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이직과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변화

(단위: 만 원)



추가적으로 <표 10>, <표 11>, <표 12>은 산업간 이직과 임금변화는 해당 시기별로 나타낸 표이다. 전반적으로 여타 산업들에서 행정사회서비스업과 도소매개인서비스업으로 이직할 때, 사회간접자본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행정사회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이 이루어질 때에도 일부 임금 하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같은 결과는 과거와는 달리 일부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제조업보다 높은 임금수준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10> 산업간 이직과 임금변화(2009~2010)

(단위: 만 원)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산업	생산자전문 서비스업	행정사회 서비스업	도소매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0.0221	-0.2968	0.0520	0.1255	-0.0446
사회간접자본산업	0.1701	0.0095	-0.0447	-0.2589	-0.3060
생산자전문서비스업	0.0502	0.3126	0.0103	-0.3793	-0.1922
행정사회서비스업	0.0319	-0.0185	0.0429	-0.0218	-0.0404
도소매개인서비스업	0.0729	0.0791	0.0667	0.0721	-0.0057

<표 11> 산업간 이직과 임금변화(2013~2014)

(단위: 만 원)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산업	생산자전문 서비스업	행정사회 서비스업	도소매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0.0057	-0.1541	0.3053	-0.0483	-0.1769
사회간접자본산업	0.0303	-0.0349	0.3792	0.1890	-0.2466
생산자전문서비스업	-0.2858	0.2773	0.0136	0.0136	0.2166
행정사회서비스업	-0.0838	0.1152	0.1836	-0.0500	-0.1937
도소매개인서비스업	0.0782	1.1574	0.2310	-0.0465	-0.0128

<표 12> 산업간 이직과 임금변화(2017~2018)

(단위: 만 원)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산업	생산자전문 서비스업	행정사회 서비스업	도소매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0.0227	0.0480	0.5873	0.0525	0.4323
사회간접자본산업	-0.1654	0.0008	0.5684	-0.3073	-0.1140
생산자전문서비스업	0.1426	0.0290	0.0201	0.1034	-0.4018
행정사회서비스업	-0.2964		0.2552	-0.0037	0.0007
도소매개인서비스업	0.1860	0.6191	1.2242	0.2365	0.0005

V. 결론

본 연구는 성별, 기업규모, 고용형태, 학력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임금격차의 문제에서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임금격차의 문제를 산업간 이직이라는 특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의 서비스화에 있어 산업간 임금격차의 문제는 산업 구조와의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간 일자리 이동, 즉 산업간 이직이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인지, 아니면 상쇄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노동자들의 산업간 이직이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0년, 2013년~2014년, 2017~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평균 임금수준 및 변화, 근로자 특성 및 구성 변화 등을 비교하였으며, 장기에 걸친 노동시장의 산업별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간 이직특성을 일자리 형태 및 취업형태별 측면에서 이직자 수와 임금수준(소득수준) 및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서비스업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근로자 특성에서 성별, 연령별 부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수준 변화에 있어서도 임금수준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의 변화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의 임금격차는 해당 기간 동안 확대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자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 학력, 고용형태,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여성, 노년층, 중학교 이하의 학력, 비정규직에서 임금수준의 상승 폭이 타 조건들에 비해 작게 나타나면서 임금격차가 산업 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도 분화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직에 따른 소득변화는 취업형태에 따라 임금노동자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이직이 이루어질 때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고용주 및 자영업자에서 임금노동자로 이직이 이루어질 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변화의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산업간 이직에 있어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할 때에는 임금 감소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할 때에는 임금 상승이 있었지만 역시 이직으로 인한 임금변화의 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이직과 함께 고용형태가 변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할 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에서 모두 과거 임금이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2017년~2018년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바뀌었음에도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직보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할 때 임금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근로자 특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이직과정 및 고용형태의 변화를 거치면서 임금변화의 폭이 조정되어 일부 격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취업을 거치지 않은 단기적 산업간 이직의 결과

이며, 미취업 기간을 거치면서 산업 및 직종이 바뀌게 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기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기에 걸친 노동시장에서의 산업별 이직 및 임금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0년, 2013년~2014년, 2017~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단기적 변화만을 살피는 데 그쳤다. 이러한 단기적 변화에서는 이직경로에 있는 미취업자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에 향후 장기적 시각에서 미취업자들의 이직경로 파악을 통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 및 소득 측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분석에 임하였는데, 산업간 혹은 이직과정에서 근로시간의 변화와 구매력 및 생활수준의 기준 지표가 되는 월평균임금을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추후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여 해당 데이터들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직요인 및 임금변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량적 분석들을 수행한다면 산업간 임금격차에 더욱 깊게 접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록

부록 1. 산업 분류

서비스업 분류	포함된 하위 서비스업
사회간접자본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송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생산자전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행정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개인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부록 2. 직종 분류

직종 분류	포함된 직종
관리전문직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	사무직 종사자
조립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판매서비스직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직	단순노무 종사자 및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참고문헌

- 권덕희·정세은, 2017.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임금격차 추이와 원인 분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31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김기승·김명환. 2013.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가, 산업관계연구 23(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난주. 2017,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통권 제20호)
- 김영미·한준. 2008.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본 한국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산국사회학 제42집 7호, 한국사회학회
- 김혜원·최민식. 2008, 직장이동의 유형에 따른 단기임금변화, 노동경제논집 31권 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남기성. 2009. 한국복지패널에서의 일자리 이동을 포함한 노동 속성 변화에 관한 심층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2
- 남춘호. 2011.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35
- 박성준. 2001, 산업간 임금격차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박원구. 1983, 산업별 임금격차의 특성과 변화, 한국개발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 손홍엽·김기승. 201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결정요인 분석, 경제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경제통상학회
- 송상윤. 2018.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은행
- 이성균, 김영미. 2010.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는 남녀임금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학 44(1), 한국사회학회
- 임나연·최민식, 2019. 한국의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분석: 직종 내 고소득 여성비중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42권 제3호
- 전병유. 1995. 한국에서의 제조업 임금격차와 생산기술, 노동경제논집 18(1)
- 정성미·성재민. 2014.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2013년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특징, 노동리뷰 통권 제106호, 한국노동연구원
- 조동훈. 2009.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 노동정책연구 9(3)
- Bartel A. and Borjas G. "Wage Growth and Job Turnover: An Empirical Analysis" in Rosen, S. editor, Studies in Labor Marke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Mincer, J. "Wage Changes in Job Changes." NBER Working Paper 190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6